‘국민 노총각’ 김건모 장가간다

쉰이 넘도록 ‘미운 우리 새끼’ 던 국민가수 김건모(51·왼쪽)가 장가를 간다. 피앙세는 유명 원로 작곡가 겸 목사 장욱조(아래 사진)의 딸인 피아니스트 겸 작·편곡가 장지연(38·오른쪽) 씨로 단아한 미모의 재원이다.

지난 5월 말 지인 소개로 만났다는 두 사람은 5개월 만인 지난달 말 상견례를 하고, 내년 1월 30일 양가 50명씩을 초대한 스몰웨딩을 약속했다.

김건모는 “(지난 5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일 뒤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고 말했다.

장지연 씨는 “제가 뒤풀이 장소 3분 거리에 친한 언니와 있었어요. 그 언니가 건모 오빠와 친해 통화하더니 저를 그 자리로 데려갔죠. ‘건모 오빠와 잘 맞겠다’ 면서요. 언니는 ‘아버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라며 오빠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라며 “첫 만남에서 제가 오빠 옆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이 분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1981년생인 장 씨는 미국 버클리음대 컨템퍼러리 라이팅&프로덕션(Contemporary Writing&Production)과를 졸업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에서 석사, 상명대학교 뉴미디어음악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자작곡을 담은 앨범을 냈고, 현재 정화예술대 등 여러 대학 겸임교수로 출강한다.

두 사람은 결혼한 뒤 봉사 활동을 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예비 부부 모습은 ‘미운 우리 새끼’ 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엠버, 두 번째 싱글 발표 … 내년 미국 투어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엠버(27·사진)가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홀로서기를 다진다.

엠버는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11월 첫 주에 다음 싱글 ‘아더 피플’ (Other People)을 발매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초에는 ‘투어 X’ (Tour X)를 제목으로 투어도 한다고 전했다.

엠버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어 X’ 는 내년 1~2월 시카고, LA, 뉴욕, 밴쿠버 등에서 진행된다.

엠버는 “최근 일정 지연과 내 SNS에서 야기됐을지도 모르는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며 “인내심을 갖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라고도 전했다.

엠버는 에프엑스에서 함께 활동했던 설리가 지난 1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트위터에 “최근 있었던 일들로 인해 앞으로 예정된 활동을 보류하려 한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고 적은 바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엠버는 2009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에프엑스로 데뷔했다. 에프엑스는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지만 2015년 설리가 탈퇴하면서 4인조로 재편됐고, 그해 10월 앨범 ‘포 월즈’ (4 Walls)를 낸 뒤에는 공백기를 보냈다.

엠버는 지난달 SM을 떠나 미국 매니지먼트사 ‘스틸울 엔터테인먼트’ 에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 둥지를 틀고 싱글 앨범 ‘X Part 1’ 을 발매했다.

BTS, 나고야 ‘MAMA’ 무대 오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12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201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MAMA)에 출연한다.

엠넷 재팬은 31일 트위터에 티켓 오픈 소식과 함께 “[2019MAMA] Performing Artist #방탄소년단 #BTS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BTS to join 2019 MAMA” 라는 글을 게재하며 방탄소년단의 출연 소식을 발표했다.

방탄소년단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작년엔 대상인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 (Worldwide Icon of the Year)뿐 아니라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톱 10’ , ‘페이보릿 뮤직비디오’ , ‘페이보릿 댄스 아티스트 남자’ 까지 4관왕에 올랐다.

앞서 ‘2019 MAMA’ 참가 아티스트로 청하, 갓세븐, 아이즈원, 몬스타엑스, 세븐틴, 트와이스 등이 1차 라인업으로 공개됐다. 최근 한일관계가 냉각이 장기화하고 개최지를 소녀상 작품 철거가 이뤄진 나고야로 정한 데 대한 비판도 많은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일본행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2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더 파이널’ (LOVE YOURSELF: SPEAK YOURSELF-The Final)을 화려하게 종료했다.

1288호 숫자퍼즐 정답								
5	3	9	7	4	6	2	8	1
6	1	7	5	8	2	9	4	3
8	4	2	3	9	1	6	5	7
7	8	4	1	5	9	3	6	2
9	5	3	2	6	7	4	1	8
1	2	6	8	3	4	7	9	5
2	6	5	9	1	3	8	7	4
3	9	1	4	7	8	5	2	6
4	7	8	6	2	5	1	3	9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인생(人生) 상담 의뢰자의 자세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얼마 전의 어느 날 오후 60대의 중년 여성이 자기가 늦게 일이 끝나서 6시 30분이나 되어야 갈 수 있는데 기다려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보통 5시 30분까지만 예약을 받지만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시라고 다짐을 받고 일단 상담 예약을 받았다. 그런데 예약 시간보다 한참 지체된 거의 7시 가까이에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온 것이다. 일단은 늦게라도 찾아왔으니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세 사람의 사주(四柱)를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서 세 명의 생년월일을 적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일단 세 명의 사주(四柱) 기둥을 다 뽑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학술원에서 정한 Policy가 적힌 것을 보여주면서 “저희 학술원에서는 복채(福債)는 선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 명의 사주를 상담하게 되므로 상담 비용은 150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비싼가요 ?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박사도 100불만 받고도 세 명을 상담해 주던데요 ?”라고 따지듯이 묻는다. 그래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남가주에서 한 사람의 사주를 상담하는데 50불 이하로 상담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비용이 부담이 되시면 먼저 본인 것부터 상담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 기회에 상담하시면 됩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나도 힘들게 일을 해도 한 시간에 20불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데 아니 몇 마디 해주고 무슨 떼돈을 벌려고 하는거요”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다. 필자가 속으로 생각한 것은 무슨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시간이 넘도록 퇴근도 하지 못하게 기다리게 해놓고 늦게 와서 상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는 말이 이미 싹수가 노란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말은 “그러면 여기 말고 그 유명하다는 박사님에게 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그 박사는 복채를 싸게 해주는데 필자는 왜 안 깎아 주느냐고 화를 내면서 따지는 것이다. 결국 서로 간에 안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상담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을 귀(貴)하게 생각해야 자신도 귀(貴)한 대접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진정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값진 것은 없는 법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 직업, 사업, 재물 |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 풍수지리 출장 감정 |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